



교육신문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발행하는
교육 전문지입니다

이 달의 지면

- 02 사범대학/교육대학원 소식
- 03 교육과 이슈/교육단신
- 04 교육과 학문/문화평
- 05 교육과 스승
- 06 교육과 세계/교육현장 노트
- 07 교육과 공동체
- 08 문화탐방

학사일정

1월

- 1(금) 신정(공휴일)
- 4(월)~6(수) 원제본 논문 접수

2월

- 1(월)~17(수) 2021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신청 기간
- 1(월)~25(목) 학적변동(휴학·복학) 기간
- 11(목)~13(토) 설날(공휴일)
- 18(목) 2021학년도 전기 입학식
- 19(금)~23(화) 2021학년도 1학기 수강 신청
- 19(금)~25(목) 2021학년도 1학기 등록
- 25(목) 2020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 25(목) 학적변동(휴학·복학) 기간 만료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독회원 등록

- 전화 02-3290-1690
- 이메일 edunews@korea.ac.kr

- 발행인 정태구
- 주 간 박종훈
- 간 사 문창원
- 발행처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창간 1971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교육신문

2021년 1월 5일(화)

The Korea University Education Monthly

제473호(월간)

■ 신년사

코로나와 대학의 미래

2020년도에 고려대학교에는 유례가 없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월에 있는 졸업식과 입학식이 취소되었고, 봄학기 강의는 2주가 연기된 3월 16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봄학과 가을학기 대부분의 강의는 교수와 학생들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8월에 있었던 교육대학원의 졸업식과 입학식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로 붐비던 강의실은 일 년 동안 거의 비어 있었고, 캠퍼스 건물의 출입구에는 열화상 카메라나 온도계가 늘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많은 이야기에 배경이 되어 주었던 교정의 분홍 철쭉꽃, 푸른 잔디, 그리고 빨간 단풍의 캠퍼스는 학생들의 환한 웃음을 끝내 보지 못해 못내 아쉬워 하였고, 학교 주변의 카페와 식당들도 학생들의 발소리를 기다리다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우리가 그동안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많이 잃었습니다.



▲2020년 10월 고려대학교 캠퍼스



▲2020년 10월 교육관 강의실 앞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람들에게 '함께함의 소중함'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강의실에서의 토론, 친구들과의 답소, 후배와 선배의 만남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웃과 연결되어 있고, 내가 사는 도시가 다른 나라의 도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종의 차이도 국가의 경계도 별것이



정태구

사범대학장 겸 교육대학원장

아님을 알았습니다. 위생이 일상화되고 불필요한 모임이 간소화되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함께 사는 삶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주저하던 우리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밀어 넣었습니다. 전국의 초·중·고·대학원생까지 수업과 강의를 온라인으로 하느라 교사와 교수는 새로운 기기의 사용법과 기술을 배워야 했고 학생들도 새로운 학습 방법에 적응하여야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학생들이 복잡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여 힘들게 통학하지 않아도 되고, 교사나 교수들도 회의를 위해 공간적 이동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업무와 소통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기술의 편리함을 알았습니다.

이제 넘어야 할 큰 변화의 파도가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이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의 후대는 큰 곤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14세기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은 종교는 물론 정치·경제·문화 측면에서도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였습니다. 양상은 다르겠지만, 21세기의 코로나19 사태도 세계를 그 이전과는 많이 다르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학자들은 예측합니다.

이 변화는 거의 전 분야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교육과 대학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마스크 착용이 '노멀(normal)'이 되었듯이,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노멀이 채택될 것입니다.

생물학자 다윈은 '생물의 역사에서 멸종하지 않고 생존한 개체는 가장 강한 개체도 아니고 가장 영리한 개체도 아닌, 변화에 잘 대응한 개체'라고 하였습니다. 변화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학은 선도적으로 미래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대학은 아주 빠르게 변화하는 전문 지식과 정보, 그리고 기술 연구와 교육이라는 그 고유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미래의 대학은 물리적 캠퍼스와 더불어 시공간을 넘어서는 가상공간 캠퍼스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미래의 지식과 정보는 매우 빠르게 변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100년에 걸쳐 진행되었던 변화가 앞으로는 10년 또는 5년 내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급속한 변화에 대비하려면 대학교육도 적극적으로 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고 이들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는 바로 창조적 사고 능력입니다. AI 시대인 오늘날, 과거에 많은 시간이 소모되었던 수많은 문제는 컴퓨터가 해결할 것입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많은 자료에서 새로운 패턴을 찾는 관찰력, 연관 없이 보이는 분야와 현상을 융합하거나 그곳에서 새로운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는 유연하고 창조적인 사고 능력의 개발이 중요합니다.

미래의 대학에서는 문과와 이과, 예술과 과학의 경계가 허물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술 속에서 과학을, 과학 속에서 예술을 발견하고 공학에서 인문학적 사고를, 인문학에서 공학적 사고를 하는 통섭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대학의 구조와 교과과정의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는 사회적 동물로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타인과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대학은 사회적 공헌과 책무를 강조하여야 합니다.

이는 고려대학교의 교육이념인 '공선사후(公先私後)'의 뜻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대학은 인성과 사회적 공헌을 구체적으로 교과과정에 반영하고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공헌과 봉사를 충분히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백신이 드디어 나왔다고 합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지난해에 우리가 잃은 소중한 것들이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교육대학원장 정태구

제21기 교육경영 AMP (구 교육경영 최고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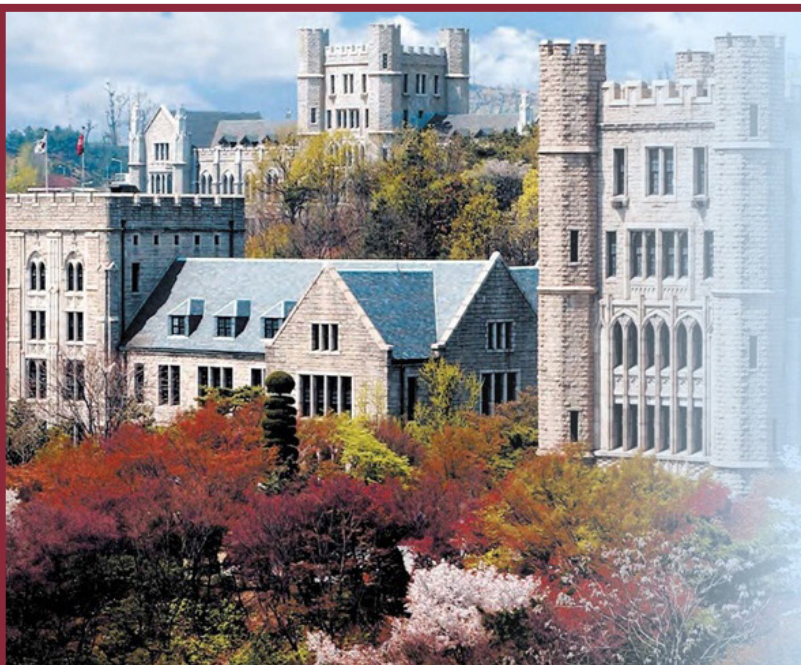
- 모집인원 : 40명 내외
- 응시자격 : 교육기관 경영자, 교육 관련 기업대표 및 임직원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인사로서 교육경영분야에 관심있는 분)
- 모집일정 : 2021년 1월 4일(월) ~ 정원 총원 시 마감
- 교육안내 : ● 교육기간 - 2021년 3월 ~ 2022년 2월 말까지(1년 과정)
● 강의시간 -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등록금 : 450만원(1학기)

▶ 과정특전

- 고려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원 자격 부여 등

▶ 접수방법 : 입학지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를 작성 후 우편, 방문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

▶ 문의처 : 교육대학원 행정실(02-3290-1370,1373)



교육대학원 제57대 총학생회장 신년사



안녕하십니까 원우 여러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제57대 총학생회장 최영묵입니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였습니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는 힘들고 지치게 했던 모든 일들을 이겨내고 좋은 일과 행복한 일만 생기를 소망합니다.

‘공감·믿음·소통으로 함께 걸어가’는 학생회인 제57대 총학생회가 교육대학원 원우 여러분과 어느덧 한 학기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사태로 교육대학원의 큰 행사이자 그간 원우 간 소통의 장(場)이 되었던 정기 고연전과 특수대학원 연합 체육대회가 취소되었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원우 여러분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것 같아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57대 총학생회는 더 나은 학생회로 거듭나기 위해, 이러한

아쉬움을 뒤로한 채 전대 총학생회의 여러 사업을 승계 받아 시행하였습니다. 임용 학원과 MOU 체결 지원금 확대, 결혼 축하 및 근로 화환 지원, 신입생 입학 및 재학생 기념품 지원, 종합시험 응원 기념품 지원, 동아리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원우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원임용시험에 국한되었던 응시료 지원을 자격증 및 외국어 시험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든 전공의 재학생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총학생회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는 분명 부족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제57대 총학생회는 잘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했던 부분은 보다 꼼꼼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원우 여러분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교육대학원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이루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지난해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더욱 내실 있는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원우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계 방학 중 임용 학원과 MOU를 체결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대학원 휴게실과 수업 준비실 환경 개선 공사를 실시하여 안정된 면학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나아가 새 개정 교과서 및 지도서 구비를 완료하고, 교원임용시험 일정에 맞추어 1, 2차 온라인 전공 특강을 진행하여 ‘선생님의 꿈’을 더욱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안에서 원우 여러분이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친목 도모 행사 및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섯 학기의 여정을 마치는 졸업 예정 원우들이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사진관과 학사모 사진 촬영 할인 제후를 맺을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학기에도

원우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참신한 의견을 토대로 양질의 사업을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총학생회는 출범 당시 원우 여러분의 의견을 대표하여 목소리를 내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그때의 다짐을 잊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공약을 실천할 것이며, 끝까지 원우 여러분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은 오행 상신의 금(金), 축의 토(土)로 ‘갯벌 속에 묻힌 보석’인 진주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대학원 원우들이 각 분야의 보석이 되어 교육 현장을 더욱 빛내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에는 원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교육대학원 제57대 총학생회
회장 최 영 묵

교육대학원 총학생회 방역물품 전달식



지난 12월 8일(화) 오후 5시경 윤초우선교육관 402호 원장실에서 교육대학원 총학생회 방역물품 전달식이

있었다. 본교는 악화되어 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에 경각심을 가지고 교

내 방역에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방역물품을 교육대학원 총학생회에 전달하였다. 배부된 방역물품에는 비말차단과 세탁 및 재사용이 가능한 대화용 마스크와 KF94 필터가 포함된다. 대화용 마스크와 필터는 교육대학원 원우를 대상으로 무상 제공한다. 전체 원우 중 2020학년도 2학기 기준 재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대화용 마스크 1개와 KF94 필터 10개를 배부한다. 방역물품은 2021년 3월 31일(수)까지 교육대학원 행정실 405호에서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방문 또는 대리인 수령 시 학생증을 제시해야 수령 가능하다.

윤지현 기자 jfrancesyoun@korea.ac.kr

2020학년도 제4차 교육봉사 세미나

지난 12월 21일(월) 오후 3시부터 12월 22일(화) 오후 3시까지 2020학년도 제4차 교육봉사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본 세미나는 신청자에 한하여 해당 기간에만 수강할 수 있었다.

세미나 이수는 고려대학교 학습관리시스템인 블랙보드(<https://kulms.korea.ac.kr>)를 통해 이루어졌다. 신청자는 블랙보드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고 ‘2020학년도 제4차 교육봉사 세미나’를 클릭한 후 공지사항의 ‘교육봉사 운영지침’을 숙지하였다.

이어 ‘세미나 수강’ 탭에서 세미나를 시청하고 ‘퀴즈’ 탭을 클릭하여 퀴즈에 참여하였다. 퀴즈를 완료하면 즉시 성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100점을 획득하여야 이수 처리되었다. 끝으로 신청자는 ‘이수 확인’ 탭에서 세미나 이수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수를 완료한 학생은 학생증을 지참하고 사범대학 교직원(윤초우선교육관 507호)을 방문하여 교육봉사 일지를 수령해야 한다. 학교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교직원 홈페이지>게시판>자료실>교육봉사 일지 및 확인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하면 된다.

본교 사범대학은 매년 4회의 교육봉사 세미나를 개최하여 학생들이 교육봉사 전 충분한 사전 지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에 임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봉사 세미나를 미이수하고 교육봉사를 나가면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교육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직원 홈페이지(<http://teaching.korea.ac.kr>)를 참고하거나 교직원에게 전화(02-3290-1335)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김재민 기자 lathinkerbella@korea.ac.kr

2020 QS 아시아대학평가 결과



영국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최근 발표한 ‘2020 아시아대학평가’에서 고려대학교가 전체 순위 11위, 국내 1위를 차지하였다. 본교가 국내 1위에 오른 것은 2009년 QS 아시아대학평가가 시작된 이래 처음 거둔 성과이다.

QS 아시아대학 순위는 아시아대학만을 대상으로 QS가 2009년부터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2018년부터 국제연구협력 지표가 추가되면서 11개 지표를 평가하고 있다. QS 세계대학순위가 6가지 지표를 평가하는 것에 비

해 더 세분화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QS 아시아대학의 지표별 반영비율은 다음과 같다. △학계 평판도 30% △졸업생 평판도 20% △교수 1인당 학생비율 10% △국제 연구협력 10% △논문당 피인용수 10% △교원당 논문수 5% △박사학위 소지 교원비율 5% △외국인교수 비율 2.5% △외국인학생 비율 2.5% △국내로 들어온 교환학생 비율 2.5% △해외로 나간 교환학생 비율 2.5%

그중 본교가 뛰어난 성적을 거둔 지표로는 ‘고용주 평판도’와 ‘연구자

평판도 및 국제연구협력’이 있다. 지난해와 같은 12위를 차지한 고용주 평판도에서 본교는 전통적으로 국내외 다양한 평가에서도 우수한 순위를 유지하며,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키워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연구자 평판도 지표에서는 1계단 상승하고 국제연구 협력 지표에서는 작년과 동일한 순위를 받으며 두 지표에서 모두 17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식 창출과 연구자 중심의 실용적 연구를 통한 사회 공헌에 중점을 두고, 건강한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온 것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전체 순위는 전년보다 1계단 오른 11위로, 국내 주요 대학 대부분이 순위가 하락한 가운데 더욱 돋보이는 결과다. 국제연구협력 지표에서 해당 지표가 생긴 이래 3년 연속 국내 1위의 자리를 유지하고, 특히 고용주 평판도 및 연구 평판도에서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은 점이 순위가 상승한 요인으로 보인다.

윤지현 기자 jfrancesyoun@korea.ac.kr

2021학년도 전기 입학시험 합격자 발표

지난 12월 18일(금) 오후 2시 2021학년도 전기 입학시험 합격자가 발표되었다. 응시자는 교육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합격 여부를 확인하였다. 합격자 조회 및 합격 통지서 출력은 12월 31일(목) 오후 5시 30분까지 가능하였다.

2021학년도 전기 합격자 등록 기간은 1월 6일(수) 오전 9시부터 8일(금) 오후 4시까지이다. 해당 기간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통지 없이 합격이 자동 취소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2021학년도 1학기 개강일은 3월 2일(화)로 예정되어 있다. 신입생 학번은 수강신청 전용 URL(<http://sugang.korea.ac.kr/graduate>)의 ‘신입생학번조회’에서 수험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수강신청 기간은 2월 19일(금) 오전 10시부터 23일(화) 오후 5시까지이다.

재학생은 학기당 10학점을 초과하여 교과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영어교육전공을 제외하고 공통영어는 학

점과 무관(0학점)하므로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나 5학기에는 수강할 수 없다.

입학 지원 당시 학부 졸업 예정자였던 경우 3월 2일(화)부터 10일(수)까지 졸업증명서와 전학년 성적증명서를 각 1부씩 교육대학원 행정실(윤초우선교육관 405호)에 제출하여야 한다. 두 증명서에는 졸업일자과 학위등록번호가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양성과정 신입생은 입학 첫 학기에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부학점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양식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공지사항>양식게시판’에서 찾을 수 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전공별 대표가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학번 조회 기간을 포함하여 각종 학사 안내 및 공고는 교육대학원 홈페이지(<http://edugrad.korea.ac.kr>) 공지사항에 게시되므로 수시로 접속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김재민 기자 lathinkerbella@korea.ac.kr

교육과 이슈

서상희

시민건강연구소 상임연구원

※필자의 요청으로 사진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학교도 문을 닫았다. 모든 수업이 익숙하지 않은 온라인 방식으로 대체되면서 학부모, 교사, 돌봄 교사, 그리고 누구보다도 어린이들에게 당황스러운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가정에서 아이들의 공부를 봐줄 수 없고, 식사를 챙겨주거나 도움을 줄 어른이 없는 경우를 대비하지 못한 국가 돌봄 체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전 세계를 강타하는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 모든 어린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할 권리’는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건강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매우 사회적이다.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병을 일으키는 것은 건강을 위협하는 수많은 요인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러한 생물학적 요인 이외에 소득, 교육, 직업적 지위 등 사회적 요인이 집단 간 건강 불평등을 만들어낸다. 이처럼 건강 수준을 결정하는 사회적 요인을 감점염은 저서 『건강할 권리, 건강정의와 민주주의』에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이라고 부른다. WHO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건강권은 모든 어린이가 건강할 권리를 말한다. 즉, 모든 어린이는 누구나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는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규범을 만들어갈 책무가 있다. 따라서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시기라 할지라도 어린이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감염병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어린이를 둘러싼 모든 사회정책과 제도에 전방위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돌봄

은 어린이에게 필수적이다. 돌봄제도와 정책, 즉 돌봄체계는 어린이의 건강과 발달 결과에 매우 중요하다. 어린이의 건강행태와 사회·심리적 요인, 생리적·병리적 변화는 어린이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 학교, 지역사회가 구축한 물리적·사회적 그리고 관계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가족, 학교, 지역사회의 자원 불평등은 물질적 박탈과 사회적 배제를 낳는다. 이는 동시에 어린이의 건강 행동, 사회·심리적요인, 그리고 건강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불평등한 건강 결과를 완화하고,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발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정책, 돌봄정책, 교육정책은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한국의 어린이 돌봄체계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의 보편서비스와 선별서비스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각 부처 간 연계가 되지 않아 서비스가 분절적이거나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 사이에 ‘초등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은 로또 당첨’이라는 이야기가 회자될 정도로 돌봄 공백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더 큰 문제는 가장 취약한 어린이일수록 돌봄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업을 통하여 돌봄체계 개편에 들어갔다. 또한, 2019년에는 그동안 분절적으로 이루어진 요보호아동 지원체계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했다. 해당 기관의 설립으로 아동복지 전달체계와 정책 총괄지원, 사업 평가, 아동 중심의 이력 관리 전산시스템 등의 국가 역할을 강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과 함께 사회적 위기가 도래하자 어린이 돌봄체계의

부실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간 지자체와 교육청 등 각 부처 간의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한국의 돌봄체계는 ‘어린이 최상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작동되고 있지 못하다. 알다시피 어린이 최상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이다. 이는 어린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어린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즉, 어떤 정책을 집행하고 서비스를 운영할 때, 어린이를 중심에 놓고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한국에서는 어린이 최상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돌봄노동 종사자의 헌신 또는 모성의 희생과 같은 여성의 노동력으로 작동시키려 애써온 측면이 있다.

이제는 사회 체계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오히려 어린이 최상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 역시 이미 많은 정책 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는 노동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어린이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돌봄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더 확연히 드러났다. 생활임금을 보전해주지 못하고, 고용이 불안정하며, 처우가 열악하여 어린이집 교사, 초등돌봄교사, 지역아동센터 교사 등의 이직률은 높은 편에 속한다.

높은 이직률로 인한 잦은 담당자 교체는 보호자가 자주 바뀌는 것과 같다. 정익중 외(2010)는 ‘지역어린이센터 종사자 소진이 어린이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돌봄교사의 불안정한 노동환경이 어린이의 기본적 신뢰감의 상실이나 정서 불안 등 심리·정서적 적응에 부정적임을 밝히고 있다. 마찬가지로 교육정책도 어

린이 돌봄 문제를 피해가거나 외면한다면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어려워진다.

보육은 ‘돌봄’과 ‘교육’을 합친 용어다. 영유아에게 돌봄은 곧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교육이다. 그런데 이것이 영유아에게만 국한된 것일까? 어린이 건강권 관점에서 본다면 어린이 교육의 기반은 기본적인 돌봄이 뿌리에 있다.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교육의 일환이라고 보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우리는 부처 간 장벽으로 인한 돌봄의 분절성과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를 오랫동안 경험해 왔다. 어린이의 최상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모든 어린이는 각자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돌봄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원칙하에 어린이를 둘러싼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어떻게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지속성을 담보하며 돌봄을 제공할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하고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돌봄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어떤 공간과 시간을 원하는지 들어야 한다. 정작 중요한 순간에 어린이 당사자의 발언권뿐 아니라 참여권도 박탈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 교사, 돌봄교사, 해당 각 부처와 지자체 담당자는 모두 다 ‘어린이를 위해서’라는 근거로 각자의 주장을 펼친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시설과 자원 수준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맞추어 넣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가를 고민하는 실정이다. 어린이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지원하고 개선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교육단신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장애학생 통합교육 실천성과 공유회 개최

교육부는 지난 12월 9일(수) ‘2020년 장애학생 통합교육 실천성과 공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유회에는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담당 장학관(사), 정다운학교 및 그 외 연구학교(유치원 2개교,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2개교) 교원 86명이 참석하였다. 정다운학교는 일반·특수교사의 협력을 바탕으로 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학교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장애학생 통합교육 실천 사례를 공유·확인하는 한편, 2021년의 주요 정책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성과 공유회에서는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용 수정한 사례를 포함하여, 원격 수업 및 긴급 돌봄 지원, 통합체육 프로그램 적용 사례 등이 발표되었다. 또한, 통합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실시한 교원 연수, 교사 연구회, 장애이해 교육 등 고내 장애 공감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했던 사례들도 함께 소개되었다. 성과 공유 이후에는 2021년 교육부의 통합교육 정책이 안내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참석자 간 토의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2021년 통합교육 주요 정책으로 언급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다운학교 확대 △통합교육 지원단 지원실 설치 지원 △교원 연수 및 장애이해교육 강화 △통합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한편, 정다운학교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합교육 운영성과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통합교육 질 지표(장애학생 통합교육에 관한 인식 조사 도구)가 5점 만점에 평균 4.7점을 기록하여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합교육을 정의하는 물음에 ‘배려, 존중, 공감, 성장, 더불어 사는 법’이 가장 많은 답변으로 집계되어 통합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부는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지원을 위해 2021년까지 정다운학교를 95개교로, 통합교육 지원교사를 1,468명으로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또한, 대학과 연계하여 예비 특수교사를 활용한 지원 등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를 공감하는 태도는 미래 시대를 살아가야 할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 중 하나이다.”라고 강조하며, “이를 의미 있게 체험할 수 있는 정다운학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라고, 통합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수진 기자 dkstnws61@korea.ac.kr

디지털 교과서 활용·개선을 위한 비대면 간담회 개최

교육부는 12월 11일(금), 국민들과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 방법을 공유하고 발전적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사전 신청한 교원·학생·학부모 및 예비교사 등 200여 명이 실시간 화상을 통해 본 간담회에 참여하였다.

1부에서는 디지털 교과서 내려 받기, 녹음, 외부 자료 연결 등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는 디지털 교과서의 다양한 활용 방법과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우수 수업 사례를 공유하였다. 이어 2부에서는 디지털 교과서의 변화 방향과 개선 사항을 논의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수렴된 디지털 교과서 개선을 위한 현장의 의견은 향후 디지털 교과서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 내용에 멀티미디어 자료, 평가 문항, 보충·심화 학습 자료, 용어 사전 등 다양한 학습 자료와 학습 지원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교과용 도서이다. 하이라이트, 메모, 쓰기, 노트 기능을 보유한 현행 디지털 교과서는 현재 초·중학교 사회, 과학, 영어 교과목과 고등학교 영어 교과목 총 134종이 개발되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비대면 수업 확대로 디지털 교과서의 내려 받기 건수가 전년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하였다.

한편, 디지털 교과서 추진 경과를 아래와 같다.

2008~2013년	2014~2017년	2018년~
디지털 교과서 원형 개발	디지털 교과서 시범 적용	디지털 교과서 적용
개념 및 기술 도입을 위한 연구 단계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별 시범 콘텐츠 1종 개발	초등3~5, 중1 사회/과학	초등3~6, 중1~3 사회/과학/영어, 고 영어
연구 산출물	심의 과정(편찬심의, 검인정심사) 거친 정규 교과서	심의 과정(편찬심의, 검정심사) 거친 정규 교과서
윈도우 PC 지원	PC 및 모바일 지원	PC 및 모바일 지원 실감형 콘텐츠 제공
관련 연구 및 제도 정비	연구학교 시범적용(296개교) 및 효과 검증	일반학교 확대 적용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자식의 짧은 생애 주기와 폭발적인 생산량을 특징으로 하는 미래 사회에서 디지털 교과서가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살아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미래형 학습매체로서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lathinkerbella@korea.ac.kr

2019 국제비교 연구(TIMSS) 결과 발표

국제 교육성취도 평가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는 2020년 12월 8일(화)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후 6시에 2019년도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TIMSS,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결과를 공식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이하 초4)과 중학교 2학년(이하 중2) 학생들의 수학·과학 성취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수학과학 성취도와 교육 맥락변인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4년 주기로 시행되는 국제비교 연구이다. 이번 연구에는 58개국의 초등학교생 약 33만 명, 39개국의 중학생 약 25만 명이 참여하였다. 우리나라는 2018년 12월에 345개교의 학생 12,101명(초4 170개교 5,855명, 중2 175개교 6,2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초4 학생의 성취도는 58개국 중에서 수학 3위, 과학 2위를 기록하였고, 중2 학생의 성취도는 39개국 중에서 수학 3위, 과학 4위로 나타나 상위 수준을 보였다.

우리나라 초4 학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학 성취도는 평균 600점으로 참여국 중 3위, 과학 성취도는 평균 588점으로 참여국 중 2위이다. 우리나라는 이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한 1995년부터 주기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우리나라 초등학교생의 성취도는 수학 2~3위, 과학 1~2위로 상위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TIMSS에서는 학생의 성취도를 ‘수월-우수-보통-기초’ 4개의 성취 수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각 성취수준 이상의 학생 비율을 합산하여 제시하는 성취수준별 학생 비율 중 수월수준 학생 비율은 수학 37%, 과학 29%이다. 기초수준 이상 학생 비율은 수학 99%, 과학 99%이다.

우리나라 중2 학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학 성취도는 평균 607점으로 참여국 중 3위, 과학 성취도는 평균 561점으로 참여국 중 4위이다. 성취수준별 학생 비율 중 수월수준 학생 비율은 수학 45%, 과학 22%이며, 기초수준 이상 학생 비율은 수학 97%, 과학 96%로 나타났다.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앞으로 첨단기술 기반 체험탐구 중심 수업, 맞춤형 자기주도 학습 지원, 학생 발달 수준에 따른 교육 내용과 방법의 다양화 등을 통해 수학과 과학에 대한 자신감·흥미·가치인식 등 정의적 태도도 함께 높여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9년도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 2019’ 결과에 대한 심층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수학교육과 과학교육의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윤지현 기자 jfrancesyoun@korea.ac.kr

교육과 학문

중등 영어교사의 과업기반 수업 실행



이지선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 겸임교수

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의 연구 방법을 통하여 우리나라 중등 영어교사의 과업기반 수업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실제 수행도, 과업 유형 선택, 과업기반 수업 설계 시 고려 요인을 살펴본다. 최근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영어교육 현상이 변화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각 학교급에 적용된 이 시점에 과업기반 수업 설계자로서 교사의 역할을 조명하여, 교사가 수업 설계 시 어떠한 과업을 왜 선택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과업기반 언어 교수법은 언어를 학습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언어를 사용한 의미 교환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표언어를 습득하도록 하는 의사소통 중심 언어 교수법이다. 이는 1980년대부터 실제 교실에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과업기반 수업 설계 시 과업 선택의 주체는 교사이다. 교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에 그치지 않고 수업 설계자, 언어 입력 제공자, 조인자, 학습 촉진자, 활동 관리자, 동기 부여자, 과업 참여자, 참관자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과업기반 교수법에 대한 선행 연구 중 교사의 역할에 관심을 두는 연구는 거의 없다고 지적된다. 실제 교실에서 과업기반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교사들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연구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수업 설계자로서 교사의 역할과 교수 맥락에 따른 교사의 역할을 고려한 연구, 교사의 신념-태도·지식 등 교사 인지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중등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및 현장방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과업기반 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수행, 선호하는 과업 유형, 과업기반 수업 설계 시 고려 요인에 대한 사실적 정보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그 기저에 깔린 교사들의 의도, 신념, 태도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심층 면담도 실시하

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중등 영어교사들은 전반적으로 과업기반 수업이 중요하다고 여기면서도 실제로는 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기능별로 살펴보면, 말하기와 관련된 기능을 가르칠 때 과업기반 수업을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면서도 실제 수업에서는 쓰기, 읽기-쓰기 통합 기능, 말하기 순으로 실행 빈도가 나타났다. 중학교 교사들은 듣기-말하기 통합 기능, 말하기, 읽기-쓰기 통합 기능 순으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반면, 말하기, 쓰기, 읽기 순으로 실제 수업에 적용하고 있었다. 한편, 고등학교 교사들은 말하기, 쓰기, 읽기-말하기 통합 기능 순으로 중요하게 여긴 반면 실제 수업에서는 읽기-쓰기 통합 기능, 쓰기, 읽기 순으로 자주 실행하는 것으로 자기보고를 하였다.

교육경력별로 살펴보면, 과업기반 수업의 적용 시기에 대하여 5년 미만의 저경력교사들은 말하기를 가르칠 때가, 15년 이상의 경력교사들은 쓰기를 가르칠 때가 더 중요하다고 여겼다. 실제 수행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경력교사가 다른 집단의 교사들보다 더 자주 실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쓰기와 읽기-쓰기 통합 기능을 가르칠 때 저경력교사보다 15년 이상의 경력교사들이 과업기반 교수법을 더 자주 실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점에서 경력교사들의 인지와 실천 사이의 일관성을 발견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중등 영어교사들의 과업기반 수업 실행 방식은 과업기반 교수법보다 과업 지원 교수법에 가까워 보인다. 과업기반 교수법과 형식 초점 수업을 병행하는 모둠식 교수법이 바로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구체적인 예시는 읽기 수업에서 드러났다. 읽기 전 단계와 읽기 후 단계에서는 과업기반 수업을 실시하고 읽

기 중 단계에서는 언어 지식을 가르치는 형식 초점 수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업 지원 교수법은 우리나라의 입시 중심 교육 문화와 사회 분위기를 고려할 때,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도 맞는 처방이라 여겨진다. 동아시아의 영어교육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이 각국의 교육 문화와 전통에 따라 지역에 맞는 토착화된 과업기반 교수법을 강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는데, 이미 우리나라 중등 영어교사들은 이를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중등 영어교사들이 과업기반 수업 설계 시 선호하는 과업 유형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중등 영어교사들은 과업 유형 중 전통적 유형인 직소 활동이나 정보 격차 과업보다는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는 개인화하기 과업을 가장 선호한다. 우리나라 중등 영어교사들은 언어 기능과 학습 소재에 따라 가르친다. 또한, 평가하는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토론하기, 예측하기, 학생들이 질문을 직접 만들기, 학생들이 지닌 일반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과업 유형 등을 선택한다. 교사들은 교수학습 상황에 따라, 학습자들이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언어활동을 하는 수동적 역할 수행에 그치지 않고 기존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동적 언어활동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과업 유형을 선택한다. 교사는 먼저 상상력과 창의력을 토대로 직관적인 선택을 하여 상황적 진정성이 있는 과업 유형과 소재를 찾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그 주제에 맞추어 자신을 표현·발견하게 함으로써 학생 간 긍정적인 관계 형성으로까지 이끈다.

이러한 과업 선택 경향을 지닌 우리나라 중등 영어교사가 과업 중심 수업 설계 시 고려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교수학습 요인으로는 수업 목표·평가의 공정성을 비롯한 평가

방법과 학습 소재가 있다. 한편, 학습자 요인으로는 학습자의 영어 능숙도가 있다. 그리고 교사 요인으로는 교사로서의 경험, 언어학습자로서의 경험, 학생의 전인적 발달에 대한 교사의 기대가 있다. 이는 반영적 자기성찰을 통한 자기보고로 얻은 분석 결과이며, 근무하는 학교급과 교육경력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나라 중등 영어교사들은 과업기반 언어 교수법을 수업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낮은 빈도로나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학습자 개개인을 다차원적으로 가장 잘 아는 교사들을 신뢰하고 자율권을 맡겨 그들이 각자의 교육 맥락에 맞추어 과업을 적용하는 수업 방식은 앞으로도 기대해 볼 만하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교사들의 과업기반 언어 교수법에 대한 인식과 실행 현황을 바탕으로 이에 적합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변화를 시도할 수 있겠다. 과업을 활용한 수업 설계 워크숍, 교육경력별 맞춤형 연수, 초임 교사가 양성 과정에서 배운 것을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돕는 멘토링 또는 코칭 형태의 밀착형 연수 등 교사 연수 역시 ‘행함으로써 배우는’ 과업 중심 교사 연수 형태를 제안한다.

본 연구는 교사의 반영적 자기성찰을 통하여 그동안 교사의 직관에 기대어 설명한 과업 선택 기제를 의식적인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구체화하였다. 또한, 교사 대상의 과업기반 교수법 연구로서 과업 선택 기제를 밝히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성찰 일지, 수업 관찰, 초점 집단 면담 등의 연구 방법으로 교사의 과업 선택 기제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를 할 수 있겠다. 앞으로 수업 설계자 및 의사결정자로서의 교사에게 관심을 가지는 연구를 기대한다.



교육신문 문화평

크라잉넛 데뷔 25주년: 조선펑크의 과거와 현재 ⑤

조선펑크의 기원과 미래, 크라잉넛



시애틀 공연 모습 ©

기를 얻으며 앞선 두 밴드와 함께 ‘트로이카’ 체제를 이루었다. 또한 드럭, 문화사기단에 이어 렉스의 원종회가 주도한 ‘스캅크 레이블’까지 설립되면서 수십 개의 밴드가 저변을 형성하고 있었다. 한편 대중과의 접점도 점점 넓어지고 있었는데, 이는 2002년 월드컵 특수에 힘입은 바가 컸다. 특히 레이저본은 리메이크곡 ‘Go West’가 큰 인기를 끌면서 이 시기 응원무대에서 가장 많은 공연을 소화한 밴드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하나의 장르로 입지를 다져가는 듯 보이던 조선펑크는 2000년대 중반 들어 완연히 쇠퇴한다. 완만한 하강세라기보다 단절, 혹은 증발에 가까울 정도로 이후 조선펑크는 잊혀진 단어가 되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2005년 카우치 사건이었다. 방송 역사상 최악의 사고로 손꼽히는 이 사건의 영향으로 향후 몇 년간 펑크록, 더 넓게는 인디 음악이 공중과 음악 프로그램에 유입되는 길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물론 경찰이 모든 클럽들을 전수 조사하거나, 언론에서 인디 음악을 퇴폐와 기행의 온상인 것처럼 자극적으로 다룬 부분은 분명 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대중들이 그러한 취급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정도로 해당 사건이 갖는 파

급력은 컸다. 이 점에서 펑크록 팬들은 지금까지도 이 사건을 조선펑크가 정체되고 쇠락하게 만든 계기로 기억하며 안타까워한다.

하지만 그러한 사건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지언정, 추락의 조짐은 이미 조선펑크 씬에 내재해 있기도 했다. 우선 앞서 언급한 세 팀 외에, 대중들의 관심을 이어갈 후발 주자를 찾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조선펑크의 침체는 짐작 가능한 것이었다. 크라잉넛 멤버들이 2002년 동반 입대하고, 레이저본이 2005년 음악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팀이 갈라지면서 생긴 공백을 메울 만한 적임자를 찾기 어려웠다. 중요한 문제는 뒤이은 밴드들의 역량보다, 공백을 메울 ‘의지’가 없었다는 점일지도 모르겠다. 앞선 글에서 다루었던 펑크 상업화 논쟁에서 알 수 있듯, 이미 당대 씬에는 크라잉넛 등의 인기에 반발해 ‘진정한 펑크’를 고수하려는 경향이 팽배해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음악적 색깔을 완전히 바꾼 뒤 인지도를 높여가던 노브레인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이었다. 최악의 사건을 일으킨 카우치 등이 바로 그러한 경향을 대변하는 진영에 속해 있던 밴드였다. 물론 ‘대중성’과 ‘상업성’에 대한 반발이 스스로를 고립시키더라도, 그것이 그들의 선택인 한 존중되어

야 한다. 그러나 적어도 경직된 질서에 대한 거부에서 시작된 펑크가 하나의 질서로 경화되어버린 모순은 분명히 지적할 필요가 있다. 자유를 의미하는 표어였던 ‘아워 네이션’이 ‘배타성’을 의미하게 되며 대중과의 소통이 차단되었고, 카우치 사건은 이를 드러내는 계기였을 따름이다.

그래서 크라잉넛의 25주년을 더욱 귀하다. 한 밴드가 멤버 교체 없이 25년을 이어가는 경우가 세계적으로도 드물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 그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아워 네이션’을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8집 ‘리모텔링’(2018)에 이어 대표곡들을 재녹음한 25주년 앨범에 이르는 최근의 작업에서 펑크록 고유의 색깔은 많이 열려졌다. 그러나 이는 ‘폐기’나 ‘변질’이 아니라 ‘확장’이라 불러야 마땅하다. 자신들이 재미있고, 좋다고 느낀다면 펑크록에 어떤 색깔을 덧입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의 펑크 정신은 일관된 것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직까지 이곳에 펑크록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이들은, 변질이라 비난 받기도 했던 이 밴드인 것이다.

교육과 스승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 함께 호흡하는 김문섭 선생님

이번 호 '교육과 스승'에서는 교육부와 The-K 한국교육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제8회 대한민국 스승상'을 수상한 사북고등학교 김문섭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학생들의 호흡에 맞추어 숨을 쉬며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뿐 아니라, 막연한 진로 탐색의 길에 동행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경험의 장을 제공하는 김문섭 선생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김문섭
사북고등학교 교사

I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도 정선 사북에 위치한 사북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김문섭입니다. 2001년에 교직에 입문하여 다양한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20여 년 가까이 교직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사교육의 도움을 받기 힘든 군 단위 인문계 고등학교, 취업을 목표로 공부하는 공업계 고등학교, 미래과학인재를 양성하는 과학고등학교에서 '꿈을 만드는 진로지도, 꿈을 이루는 진학지도'를 목표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II 선생님께서는 학생 맞춤형 직업 및 진로 교육에 주력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단지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공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진로진학지도는 고등학교의 가장 중요한 교육적 요소이므로 그것이 절실히 필요한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과 학생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은 오히려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일방적으로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서로 격려·위로해 주는 자리가 고3 담임과 대입진학부장의 자리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학생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행복했기에 오랫동안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III 선생님께서 역점을 두고 진행하시는 '꿈을 만드는 진로지도, 꿈을 이루는 진학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꿈은 어떠한 분야에 대한 경험의 깊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종종 학생들은 학교에서 왜 많은 과목을 배워야 하는지 묻습니다. 이것은 꿈의 측면에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과목 안에서 다양한 진로와 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꿈이 없는 아이들과 그에 대한 우려는 획일화된 개념 중심·

강의 중심 수업의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반성해 봅니다.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학생활동 중심, 과정 중심 수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경험을 쌓으며 진로와 꿈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집니다. 저는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대부분 사교육의 도움을 받기 매우 어려우며 진학 준비를 학교에서 합니다. 저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주말과 방학까지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며 개인의 적성에 맞는 진학지도를 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일례로 매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100시간 이상의 진학지도 상담, 학생생활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진학상담책자 발행 등의 활동에서 익힌 지식으로 학생들에게 체계화된 진학상담의 기회도 제공하였습니다.

한편, 학생들이 진학할 대학들의 입학처를 한 군데씩 직접 방문하며 진학 관련 자료를 모아 그것을 바탕으로 학부모·학생 대상 입학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또한, 교내 대입진학 프로그램 실행을 통해 체계적인 학생 맞춤형 진학지도를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IV 학교 및 학생의 여건을 고려한 진로 프로젝트 연구가 가지는 의의 또는 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 없이 추상적으로 막연히 대학을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중심의 다채로운 행사와 진로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자신의 진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꿈과 진로를 찾는 활동을 하고 자신의 분야를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실상 자신의 꿈을 찾을 기회가 거의 없으며 학교의 여건상 자신의 진로를 정할 수 있는 활동이 부족합니다. 이에 저는 근무했던 모든 학교에서 여러 행사와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찾을 수 있는 연구들을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가령, 미래사회에 필요한 융합능력을 키우고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체험하며 학교·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자신이 되어야 함을 느꼈습니다. 이로써 점차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학과를 찾아 나갔습니다. 자연스럽게 진로·진학지도가 된 셈입니다.

한편, 인문계 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만난 학생들은 모두가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만나고 지



도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며 어떻게 진로를 정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단지 자신이 직장생활을 할 무렵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할 것이며 많은 직업의 변화로 어려움을 느낄 것임을 막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변화를 탐구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미래지속가능발전 분야, 창업 및 발명 분야, 자연연구 분야에 대한 다양한 프로젝트 연구 활동을 이용한 진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미래 유망 분야와 창업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고 실감하며 관련 분야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II 선생님께서는 국내외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강의와 과학 행사의 장을 마련하셨습니다. 어떠한 주제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폐광 지역에 위치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시절, 폐광으로 인한 가정 문제를 지닌 학생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인성지도와 교육봉사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적 건강을 신장할 수 있는 인성교육활동 및 교육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성지도를 위해 한 달에 한 번 학생들과 함께 천사의 집(유아), 희망의 집(알코올 병동) 등에서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봉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의 눈빛과 삶의 태도가 따뜻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인터랙트 청소년 봉사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였습니다. 학생들과 정기적으로 모니카의 집, 정선 사랑의 집 등 노인요양원에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하였고, 사북의 각종 행사도유미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 이후 과학캠프 및 학생 대상 강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연간 10회 이상 학생·교사 대상 강의를 진행하면서 과학 및 진로 관련 프로그램 운영, 프로젝트 연구 방법론 및 융합교육(STEAM) 정보를 학생과 교사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꿈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이러한 활

동이 자신의 진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지속적으로 알려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들을 통하여 교육봉사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진로체험의 기회와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경험이 필요한 학생들이 많다는 사실과 여전히 교육적 여건이 부족한 지역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교육적 필요가 있는 학생과 교육적 여건이 미비한 지역에 체계적인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2018년에 교사 교육봉사 단체인 '한국미래융합교육협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협회에 소속된 선생님들과 함께 철원, 정선, 태백 등 강원도 도서벽지 학교 학생들을 위한 과학캠프,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과학동아리 지원활동 등을 2018년에 20회 이상 개최·운영하여 다양한 체험 및 활동 중심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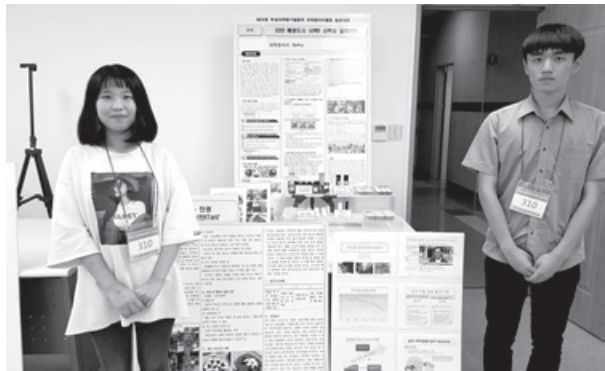
한편, 2016년 이후 방학을 활용하여 국제 교육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놈펜, 캄퐁툼 등에 위치한 학교에서 캄보디아 학생을 위한 STEAM 캠프를 운영하였으며 2018년부터 캄보디아 교육부의 협조를 얻어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STEAM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III 끝으로 교사를 준비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학생들에게 당부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소모적인 경쟁에 지쳐 왜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니는지 알지 못한 채 생활하는 학생들이 가득합니다. 게다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조력하는 선생님과의 유의미한 교류도 적습니다. 따라서 수업, 동아리 활동, 학급활동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때 학생들과 공감하며 함께 호흡하는 선생님들이 학교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실 학생들과 의미 있는 교류를 할 수 있는 교사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노력해 온 것처럼 시대에 맞는, 아니 시대를 앞서가는 교사 전문성을 키우려 노력한다면 어느새 멋진 교사가 되어 학생들과 추억을 쌓고 있을 것입니다.

김재민 기자 lathinkerbella@korea.ac.kr



교육과 세계

강현석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필자의 요청으로 사진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 역량교육과정의 변화와 특징

본고는 뉴질랜드의 핵심역량 교육과정과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변화를 소개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핵심역량 교육과정이 우리의 학교현장에 유의미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 초기 접근: 핵심 역량 중심 접근

뉴질랜드는 세계적인 동향에 편승하여 21세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에 주목하였다. 특히, 학생이 스스로 학습해 나갈 수 있는 평생 학습능력을 함양시키고자 핵심역량을 고안하였다. 뉴질랜드는 OECD의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프로젝트에서 나온 핵심역량, 즉 '자율적 행동', '사회적 상호작용', '지적 도구 활용' 및 '사고'를 토대로 자국 교육과정의 맥락에 부합한 핵심역량을 개발하였다. 이는 '자기관리', '관계형성', '언어-상징-텍스트의 사용' 및 '사고'이다.

뉴질랜드 교육과정은 핵심역량을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것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학습하고, 일하고, 공헌하는 데 필요한 능력'으로 정의한다. 나아가 핵심역량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학습을 유도하는 도구가 된다고 본다. 핵심역량은 국가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비전이자 교육과정 의사결정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원리이다.

뉴질랜드 교육과정에서의 핵심역량은 교육내용의 적정화를 통해 학생들이 학습한 것을 실제적 맥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학교현장에서 핵심역량은 지식과 기능 혹은 가치와 단순히 통합되는 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교과별 핵심역량의 의미가 교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다면 핵심역량은 우리의 학교현장에서도 외면받거나 혼란만 가중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

이 핵심역량을 함양하고 실제 상황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수업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관건이다. 다음 절에서는 핵심역량을 교육과정 내용에 의도적이고 신중하게 엮어내기 위해 최근에 뉴질랜드 일부 학자들에 의해 제안된 '능력 접근법'을 검토하고자 한다.

II 최근 접근: 능력 접근법(Capabilities Approach)

핵심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평생학습사회에서의 평생 학습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은 학습자들의 핵심역량 함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나 핵심역량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과 그것을 교과에 적용하는 방식에 크고 작은 오해와 문제점이 발생하자 핵심역량과 교육내용을 통합시키는 도구로 '능력'이 등장하였다.

능력 접근법은 '아는 것'과 '행할 수 있는 것'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나 아직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방안이다. 뉴질랜드 교육부는 능력 접근법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능력기반의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다양한 학교현장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4대 능력과 달리 호주와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는 7개의 일반능력인 '문해력, 수리력, ICT능력, 비판적·창의적 사고, 윤리적 이해, 개인적·사회적 능력, 그리고 간문화적 이해'를 핵심역량으로 명시하고 있다.

능력은 교과와 핵심 개념 및 핵심 기능과 구체적이고도 명료하게 통합될 수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 학교교육과정의 목표, 즉 핵심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임이 자명하다.

요컨대 뉴질랜드 교육과정은 하나의 틀만 제공할 뿐, 단위학교에서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맥락을 고려하여 지역 및 학교의 실정에 부합한 능력을 결정한다. 이는 뉴질랜드에서는 국가수준의 시험이 없고 상당한 교육

과정 융통성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기 능력은 수와 유형에 있어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맥락에 따른 지속적인 변화를 함의한다. 이러한 방침은 핵심역량을 교과교육과정 및 수업과 통합하고자 하는 우리의 학교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뉴질랜드에서는 현재 '비판적 사고, 관점의 수용, 학문적 의미구성, 탐구 능력'을 선정하여 교과교육과정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실정에 부합한 능력을 탐색하여 능력기반의 학교교육과정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능력기반의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교사가 능력기반의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단원과 수업을 설계할 때 참고 및 활용할 수 있는 수업방법과 자료 등이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등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먼저 교사는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발에서 추구하는 핵심역량이 무엇이며 새로운 방향으로서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이유와 중요성,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의 위상과 학교교육에서 핵심역량을 반영해야 하는 이유 등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능력은 핵심역량과 교과교육과정을 통합하는 도구임을 인식하고 핵심개념과 통합될 수 있는 수업설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뉴질랜드의 경우 교사가 핵심역량인 '사고'를 수업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교육과정 지원 웹사이트(<http://nzcurriculum.tki.org.nz>)에서 '핵심역량 개념도'와 교육과정기준 문서를 활용하여 단원 및 수업을 계획할 수 있다.

'핵심역량 개념도'는 뉴질랜드 교육과정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통합하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 이 개념도는 학생들이 경험하고 성취할 가치가 있는 내용 등으로 제시되어 있어 핵심역량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처럼 능력기반의 수업설계와 실행 및 피드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

보와 경험을 활용하고 공유하는 공동의 장이 요구된다.

둘째,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방법 및 평가가 능력을 기반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교수·학습 방법에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뉴질랜드 교육과정은 실제 목적과 맥락 내에서 유의미한 학습활동을 계획하고자 주제중심 접근법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실제적 맥락에서 구안된 활동이나 지식, 기능, 가치, 태도 등을 통합할 수 있는 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교사와 학생들에게 익숙한 수업활동에 핵심역량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 '수행 중' 및 '활동 후' 단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핵심역량교육을 고려 및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선도적인 계획', '연결', '도전'으로 구성된 '지표 참조틀'을 제공하고 있다.

끝으로 평가는 전통적 평가의 관점과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역량은 다양한 맥락에서 여러 개의 수행 증거가 축적된 후에 판단할 수 있다. 유사한 수행을 통해 드러난 변화의 모습은 학습의 증거가 될 수 있고 새로운 과제에서도 적용 가능한 학생의 역량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능력에 대한 평가는 수행과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의 과제는 학생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유의미하며 특정 맥락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평가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 본 연구는 조인숙, 강현석(2017) 중등 교육연구, 65(3), 6-1-631에 실린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질적 전환과 학교 교육에의 시사점 탐구: 뉴질랜드 사례를 중심으로'의 내용을 발췌한 것임을 밝힘.



교육현장 노트



장민정

일반사회교육전공/안양덕현초등학교

‘졸업식 날, 선생님은 어떤 기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이제까지는 단 한 번도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필자에게 졸업식 날은 늘 가족들의 환한 축하와 친구들과의 아쉬운 인

사로 정신이 없는 하루였다. 일순 선생님과 헤어진다는 사실에 가슴 한편이 울렁이는 듯 싶기도 했지만, 우리를 더 넓은 세상으로 보내는 선생님의 기분까지는 헤아려보지 못했다.

2020년 한 해 동안 나는 스물 다섯 명의 6학년 2반 친구들과 동고동락했다.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우리가 교실에서 얼굴을 마주한 시간은 짧았지만, 이번 일로 인해 정이 드는 것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식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란 걸 깨달았다.

학생들을 졸업시키는 날이 영영 오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교실 창문을 열어두면 들어오는 바람결은 점점 차가워지기만 했다. 가끔씩 아이들과 나란히 섰을 때 어느새 나를 뛰어넘은, 혹은 나와 비슷한 키를 한 모습을 보면서 한 해 동안 그들이 정말 많이 성장했음을 체감한다. 자란 키만큼 아이들의 마음도, 생각도 더욱 영글어가는 것이 보인다. 교과 내용이 어려워질 때, 친구를 좀 더 섬세하게 배려해줄 때, 선생님의 감정을 읽고 먼저 말을 걸어줄 때 ‘아, 이제는 중학교로 보내줘야 하는 때구나.’ 하고 느끼게 된다.

중학교 입학 원서를 작성하고, 추억 사진으로 앨범을 채우고, 생활기록부를 마감하고, 졸

더 멀리, 더 높게

업식 행사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을 더 넓은 세상으로 보낼 준비를 한다. 한 해가 무사히 지나갔다는 것이 다행스럽고 한편으로는 예쁘고 소중한 아이들을 만난 것에 감사하지만 감사의 크기만큼 아쉬운 마음도 크다. 아이들이 졸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서 울컥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다. ‘중학교 가면 좋을 것 같아?’라며 어린아이처럼 괜한 질투를 하게 된다. 처음으로 교복을 입을 생각에 들뜬 아이들을 바라보며 나만 이렇게 아쉬운 건지 팬스레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울해는 특수한 상황이라 졸업을 축하하는 여러 행사를 진행하지는 못했다. 그래도 초등학교에서의 마지막 1년을 최고의 기억으로 장식해주려 애썼다.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내가 더 큰 기쁨을 느끼고 곱씹을 추억을 만들어갔다.

우리가 함께 보낸 행복했던 추억이 아이들의 삶에 어떻게 남을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혹은 어른이 되어서 간혹 힘에 부칠 때면 우리가 함께한 시간을 떠올려보기를, 우리가 함께한 기억이 너희의 마음을 따뜻하게 밝혀주는 작은 불빛이 되기를, 그 기억이 힘든 시간을 버텨내게끔 지탱해주는 작은 위로와 잔물

결처럼 퍼지는 미소로 변했으면 한다. 앞날은 항상 아이들이 견딜 수 있을 정도로만 차갑고, 넉넉 만큼 따뜻하기를 간절하게 바라본다.

새해가 밝고 2주만 지나면 아이들이 졸업을 한다. 한 해 동안 쌓은 빛나는 추억, 졸업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속절없이 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다. 이제 각자 배정된 중학교의 신입생으로서 새로운 마음을 한가득 품은 채 우리 학교의 교문을 나설 것이다. 아이들을 배웅하고 졸업식이 끝난 교실로 홀로 돌아와야 하는 쓸쓸함은 생각만으로도 저릿하다. 졸업식으로 시끄럽던 학교가 조용해지고, 북적이던 교실이 텅 비었을 때의 그 마음은 얼마나 공허할까.

그 공허함은 아이들과 함께하던 추억으로, 새로운 아이들에 대한 기대로 채울 수 있다고 믿는다. ‘교학상장(敎學相長)’, 내가 교사가 된 후 비로소 공감하는 사자성어이다. 한해살이를 돌아보면 아이들을 보며 선생님 나도 진정한 우정을, 배려와 존중을, 겸손과 감사를 배웠다고 전해주고 싶다. 서로의 마음에 새겨준 가르침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함께한 추억은 언제나 우리를 별처럼 밝혀주리라고 믿는다. 아이들과 내가 그 힘으로 더 멀리, 더 높게 향해 갈 수 있기를 언제나 기도하겠다.

학교현장 탐방

'예술교과중점과정'으로 창의적 예술가를 육성하는 창원대산고등학교



김민수
창원대산고등학교 교사

예술교과중점과정은

예술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물론

일반 계열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문화 예술을 향유하는

학교 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 교과와 다변화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과

기타 교과와의

융·복합적 사고를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인사말과 창원대산고등학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창원대산고등학교에서 예술중점 교육과정 및 예술교과 특성화학교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미술 교사 김민수입니다. 창원대산고등학교는 창원시 외곽에 위치한 학교로, 1954년 개교한 이래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명문 사학입니다. 2014년 교육부 선정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로 지정된 이후, 2017년 예술교과중점학교 지정, 2019년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지정 및 기숙형 자율학교 재지정, 2020년 예술중점학교로 지정되어 지역 내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창원대산고등학교의 교육목표와 특징은 무엇입니까?

본교는 '정실하고 근면한 참된 인간 육성'이라는 가치 아래 성실인·근면인·창의인의 육성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의 실천과 이에 걸맞은 동적 변화가 본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교는 앞서 언급하였듯 다양한 교육부 지정 사업에 선정됨은 물론, 창원시 명품학교 육성사업에도 선정되어 다채로운 교육과정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체험학습 운영, 학교 단위의 프로젝트 실시, 교과 협의회 및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학교 구성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대산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교과중점과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본교의 예술교과중점과정은 두 트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 계열 학생들에게는 '예술에 대한 보편적 경험'을 제공하고, 예술 계열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전문적 탐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양한 전문 교과를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이 음악, 미술 분야와 관련된 여러 교과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학년도 현재 음악, 미술 분야 일반 선택 교과 외에도 음악 연주, 음악 전공실기, 음악 감상과 비평, 음악사, 공연실습, 음악이론, 시창창음, 미술 창작, 드로잉, 미술 감상과 비평, 미술사, 미술 전공실기, 미술이론, 시각디자인 등 14개의 전문 교과를 진로 선택 과목으로 개설하여, 음악과 미술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위의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8학년도부터는 매년 지역과 연계하여 음악, 미술 관련 학교 중점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습지를 상징하는 음악 작곡 및 공연,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벽화 그리기 및 캠페인 활동, 지역의 역사 유물 및 문화 탐구 활동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탐구 역량을 키우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미술관과 협업하여 공예, 날염, 벽화 활동과 같은 미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인근 보육원과 초등학교에 방문하여 음악 연주회 및 음악 교실을 운영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봉사 정신을 기르는 한편, 작게나마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 예술인 육성을 위해 전문화된 교육 활동 또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술 계열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개별 진학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하여 목표를 명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학생들이 예술 관련 전문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과 소인수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매체 미술, 애니메이션 제작 등의 교과는 소인수 심화 수업으로 개설하고, 인근 대학과 연계하여 해당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창작 활동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수, 직업인, 예술가 등 예술 분야 명사를 초청하여 진로 특강을 개최하고, 연주자의 마스터 클래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방과 후 미술 실기반, 음악 실기반을 개설하여 학교 내에서 충분히 진학을 위한 실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술교과중점과정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술교과중점과정은 예술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물론 일반 계열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문화 예술을 향유하는 학교 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학기 말에 실시하는 '향상 발표회'와 학년 말에 실시하는 '정기 예술제'와 같은 문화 행사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미술 작품과 음악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예술 교과와 다변화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과 기타 교과와의 융·복합적 사고를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본교의 창의 융합 대회에서는 공학적 사고와 디자인적 사고가 결합된 스티프 탐구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술교과중점과정을 통해 전개되는 이러한 흐름은 전문 예술 인재를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창의성을 갖춘 21세기 인재를 육성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예술교과중점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어려운 부분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다양한 체험 기회 확보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면 단위 농촌 지역에 위치한 본교는 문화적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설과 장비가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질 높은 체험을 위해서는 외부 활동을 실시해야 하지만, 그마저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체험활동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문가 섭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 교과가 선택 교과로 개설되는 상황에서 교내의 음악, 미술 교사만으로 그 수요를 충족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매년 전문 교과를 지도할 강사들을 섭외합니다. 그러나 불편한 통근 거리, 강사비 책정 문제 등으로 인해 강사를 수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강사진은 학생들을 위해 그러한 불편함을 모두 감수하고 계신 실정이라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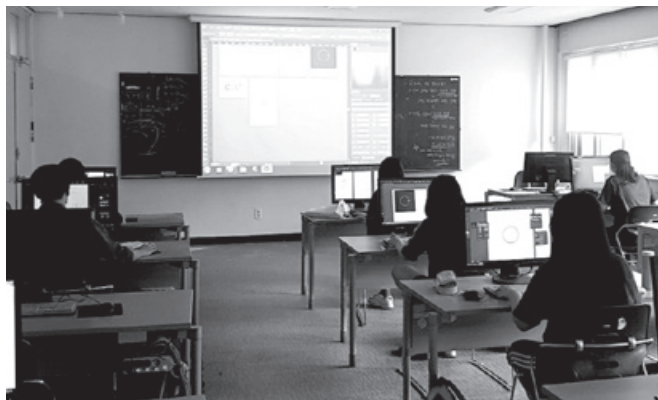
예술교과중점과정에 대한 학부모 및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본교의 예술교과중점과정은 학부모 및 학생 모두에게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술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이전에도 본교는 예술반을 따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술 교사였던 현 교장 선생님께서는 평교사 시절부터 예술 분야로의 진로·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을 모아 오케스트라 및 미술 실기반을 운영하셨습니다. 이처럼 본교는 예술교육에 대한 전통이 깊고, 이에 대한 자부심 또한 높습니다. 이러한 교육적 기조는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예술교육을 공교육의 영역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우수한 대입 결과가 이를 반증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근 지역에서는 음악, 미술을 하려면 창원대산고등학교에 가야 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하는데,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면 본교의 일원으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재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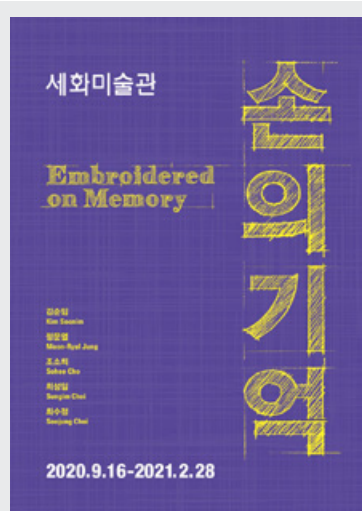
7년이라는 그리 길지 않은 교직 경험을 통해 느낀 바를 여러분들께 조심스럽게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밖에서 바라보았던 교사의 모습과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모습은 그 간극이 컸습니다. 교과지도, 생활지도, 부서 업무 등으로 인해 초임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시에 퇴근해 본 것이 손에 꼽을 정도로 바쁜 생활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로감 속에서도 제가 즐겁게 교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은 저를 기억하며 연락해 오는 졸업생들 덕분입니다. 누군가에게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보람이고, 이는 현재의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생님이 되실 여러분도 이런 보람을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수진 기자 dkstnws61@korea.ac.kr



문화 탐방

이번 문화탐방에서는 '손'의 가치를 되새겨 보는 '손의 기억' 전시회를 소개합니다. 많은 것이 자동화되어 있는 요즘, 더 이상 사람의 '손'은 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처럼 비추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손, 특히 예술가의 손은 여전히 창작 행위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각자의 개성에 따라 손끝에서 피어나는 예술작품. 이 예술작품 속에는 분명 개인의 '손의 기억'이 녹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손끝에서 어떠한 아름다움이 빛어지고 있는지 감상하려 떠나볼까요?



〈손의 기억 展〉

- 전시장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홍국생명빌딩 3층 세화미술관
- 전시기간: 2020.09.16.(수)~2021.02.28.(일)
(매주 월요일 정기휴관)
- 관람시간: 화, 수, 금, 토, 일 오전 10시~오후 6시
목 오전 10시~오후 8시 30분
- 관람요금: 무료
- 관람문의: 02-2002-7785-8

손끝이 빛어내는 아름다움, 〈손의 기억 展〉

예술작품을 창작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도구는 무엇일까. 작품 성격에 따라 다양한 도구들이 사용되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도구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작가의 '손'이 아닐까 싶다. 이 질문을 접한 독자는 이에 대한 답으로 붓, 물감 등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다. 사실 '손'이라는 답을 떠올리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 신체의 일부인 손은 무엇인가를 조작하고 만들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것을 굳이 도구나 수단이라는 이름으로 떠올리지는 않는다. 손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것이기에 이것을 중요한 도구로 인식하지는 않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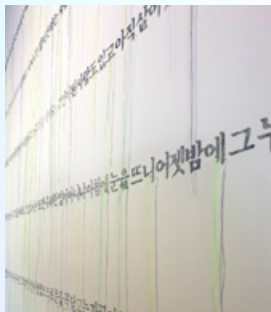
최근 로봇이 발달하고 자동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손의 역할도 많이 줄어들었다. 예술작품 또한 기계나 도구에 의해 대량 생산되고 있는 모습을 종종 살펴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무조건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전에 비해 손의 역할과 그 비중이 상당히 줄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다. 하지만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든 작품 창작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손의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수공예적 가치가 높은 작품들을 관객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전시에 참여한 다섯 명의 작가들은 느리고 꼼꼼한 과정을 통해 작품에 충실히 손의 기억을 담아내고 있다.

| 조소희

조소희 작가의 작업을 관통하는 핵심어는 '시간'이다. 작가는 시간을 가시화하기 위해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데, 특히 실을 재료로 하여 무엇인가를 짜는 행위를 반복한다.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 작품 속에 시간을 쌓아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완성된 작품은 시간 그 자체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왜 하필 실을 재료로 삼았을까. 작가는 실의 '가벼움'이라는 특성이 시간의 빈(空) 이미지를 지탱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where...〉과 〈아, 이 또한 유쾌한 일이 아니냐?〉라는 두 점의 작품이 우리의 시선을 끈다. 〈...where...〉은 공간에 펼쳐진 시간의 은유를 표현한 작품이다. 촘촘한 그물의 형태를 하고 있는 이 작품은 반복되는 짜임의 형상을 통해 시간의 축적을 가시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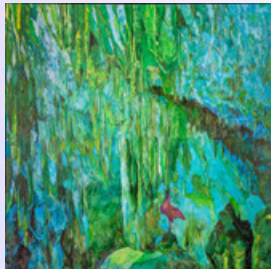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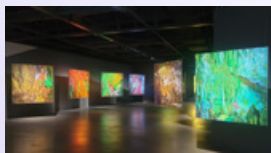
곡면의 벽에 전시된 〈아, 이 또한 유쾌한 일이 아니냐?〉는 중국 명말 청초 시기 활동했던 진성탄(金聖歎, 1610~1661)이 쓴 '행복한 한 때에 관한 33절'의 문구를 인용한 작품이다. 행복은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의 소소한 사건과 발견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한편, 작가는 각 글자 밑에 실을 설치하여 일상과 시간을 연결하려는 시도를 선보이고 있다.



| 최수정

'달빛이 비추는 땅'이라는 큰 주제 아래 〈초상 풍경〉이라는 7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최수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회화의 한계를 넘나드는 실험을 보여준다. 초상(portrait)은 근경의 이미지로, 풍경(landscape)은 원경의 이미지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작가는 회화의 평면 속에 근경과 원경, 즉 이 대조적인 것들의 공존을 표현하고자 했다. 이것은 회화 매체가 근원적으로 지녀왔던 모순을 극복해 보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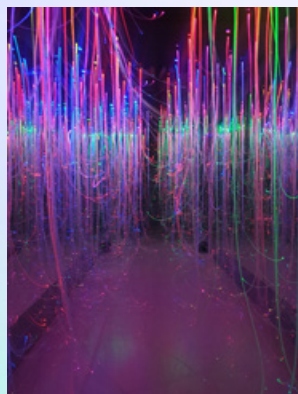
각각의 〈초상 풍경〉은 동굴 속 표피의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이 이미지들은 '의색(Pseudo Color)'으로 채색되어 있다. 의색이란 특정 정보를 담고 있는 위장색을 의미한다. 동굴의 표피는 1차적으로 풍경 이미지를 나타내지만 사실 누군가의 초상을 위장하고 있다. 실제로 작품을 멀리서 감상할 때는 동굴 표피의 무늬만이 눈에 보이지만, 조금 가까이에서 감상하면 사람의 형상 같은 것이 보인다. 작가는 캔버스 속에 회화의 환영과 즉물성을 동시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 정문열

정문열 작가는 과학자이다. 그는 과학 기술과 인문학적 감수성을 융합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미학적 가능성을 탐구한다. 작가가 선보이고 있는 작업들은 모두 고도화된 기술에 의한 것들이다. 하지만 그 속에는 아름다움과 낭만적인 감성이 공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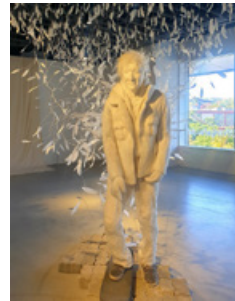
제1전시실과 제2전시실을 잇는 복도 공간에 〈소리의 나무〉라는 그의 작품이 설치되어 있다. 이 작품은 영화 〈아바타〉의 나비족이 신성시하는 '소리의 나무'로부터



영감을 받아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빛이 나는 늘어진 나뭇가지를 재현하기 위해 작가는 광섬유를 선택하였다. 작가는 관객들이 지나갈 때 광섬유들이 빛을 내고 반응할 수 있도록 직접 이를 프로그래밍하였다. 300여 개의 LED 광원과 12개의 아두이노 마이크로 컴퓨터, 컴퓨터 알고리즘 등 현대 과학이 집약된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유기적인 형태와 아름다운 색을 구현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 김순임

김순임 작가는 자신을 공간과 공간, 공간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람과 지역,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직조자'로 상정하고 있다.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작업을 선보이는 김순임 작가는 광목천, 펠트, 솜, 실 등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자연 섬유를 주로 사용한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직접 만났던 사람들과 가족의 얼굴을 담은 인물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전시 공간 중앙에 놓인 〈비둘기 소년_The people19-다니엘〉은 작가가 뉴욕에 체류하던 시절 만났던 동유럽 출신 이민 청년의 모습을 구현한 것이다. 이 외에도 작가의 할머니를 주인공으로 한 〈코튼 드로잉 11-이옥란〉, 최근 병환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나타낸 〈코튼 드로잉 14-김기환〉, 타이페이에서 만난 인물을 담은 〈코튼 드로잉 13-Liu Fung Bing〉 등도 함께 소개되고 있다. 누군가의 얼굴을 작품으로 마주하는 경험은 낯선 경험이다. 특히, 생면부지의 인물을 모델로 하고 있는 이 작품들은 관객들에게 더욱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낯설 속에서 반가움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들을 나의 할머니, 나의 아버지, 동료라고 생각하는 순간, 낯설은 반가움으로 전환된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직조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 최성임

최성임 작가는 주로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소하고 약한 것들을 모아 부피를 만들거나 거친 표피를 감싸는 형태의 설치작업을 주로 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작업에 집중할 수 있었던 밤의 시간을 표현하기 위해 '밤의 정원을 조성하였다. 까만 밤하늘의 달빛과 깜깜한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손끝의 감각을 금색과 검은색의 오브제로 표현하였다. 작품들은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각각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각 작품들은 서로의 가림막이 되어 주는 한편, 서로가 서로를 투영함으로써 의미의 확장을 일으키기도 한다. 관객들은 이 공간에서만큼은 동선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데, 이는 작가에 의해 의도된 바라고 할 수 있다. 작가는 관객들이 오브제 사이를 자유로이 오가며 각자만의 감각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이 밤의 정원을 지나 바깥쪽으로 자리를 이동하면 밤의 이미지와 대조되는 〈구름〉이라는 작품이 설치되어 있다. 낮의 색깔을 지닌 이 작품은 마치 뭉게구름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자아낸다. 이곳은 밤과 낮의 균형이 맞추어지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작가들의 손끝에서 피어난 여러 작품들을 살펴보았다.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수 백 번, 아니 수 천 번의 손이 닿았을 것이라 생각하니 작품 하나하나가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진다. 지금까지 너무 속도를 내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조금은 느릴지라도 각자의 손으로 무엇인가를 직접 만들어 내는 경험은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렇게 탄생한 작품에는 나의 시간, 내 손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길 테니 말이다. 손이 빛어내는 가치. 응당 있어야 할 신체 부위이기에 손의 가치를 너무도 당연히 여겨 왔던 것은 아닐까. 익숙한 것이 지나는 가치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게 된다.